

(영국) 해외관광시장 동향 - 2026년 6월

'26. 6월 / 한국관광공사 런던지사

□ 영국 방한시장 일반

○ 한국 ↔ 영국간 관광교류 현황

- 한국인⇒영국 방문 감소 추세('23년 182,000→'24년 169,000)
- 영국인⇒한국 방문 증가 추세('26년 1~5월 87,195명, 전년比 22.7% 증가)

(단위 : 명)

연도	영국→한국	한국→영국	비고
2019	143,676	301,000	
2023	121,376	182,000	
2024	147,493	169,000	
2025	171,940	통계 미발표	
2026	87,195	통계 미발표	1~5월 누적

* 한국인 영국방문 통계 <https://www.visitbritain.org/research-insights/inbound-markets>

* 영국인 한국방문 통계 한국관광공사 내부통계자료 참고

○ 한국 포함 아시아 주요 관광국 영국인 방문 통계

(단위 : 명)

연도	태국	싱가포르	일본	홍콩	한국	대만
2019	확인불가*	607,821	424,383	470,295	143,676	115,641
2024	965,862	579,516	437,230	294,438	147,493	96,237
2025	1,083,162	587,356	535,004	339,097	171,940	108,078
2026	497,589 (1~5월)	221,848 (1~4월)	250,500 (1~5월)	201,192 (1~4월)	87,195 (1~5월)	38,078 (1~4월)

* 국가별 관광청, 관광공사 공식 사이트 통계자료 참조

○ 영국(히드로)→한국(인천) 항공노선 현황 ('26.5월 현재)

항공사	코드	편수	편당 좌석수	주간 좌석수
대한항공	VS208	주7편	282	1,974
아시아나	KE908	주7편	311	2,177
버진애틀란틱	OZ522	주7편	258	1,806

* 항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 6월 주요 동향

○ (영국 정부) 영국, 경기활성화를 위해 업계와 관광협력 총력.

- Visit England, 해안관광 활성화 캠페인 'My coast has the most..' 추진. 동 캠페인은 업계와 지자체, 주요 관광명소들이 공동으로 영국 내 해안 지역 관광 스토리텔링과 국내여행 추천장소를 소비자들에게 SNS를 통해 홍보하는 것으로 6.29-7.5일 동안 진행됨.
- 최근 영국 해안 및 해변지역 국내여행이 감소하고 있으며 '26년에는 전년 동기 대비 여행객 18% 감소하고 있다고 함. Visit England 관계자는 영국인 연간 해외여행 지출액 10%를 국내휴가비로 전환 시 연간 약 80억 파운드(약 14조 8천억원) 수준의 경제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분석.

* 잉글랜드(England) 관광산업은 지역경제를 대표하는 핵심 산업으로 연간 1,270억 파운드(약 235조 원) 경제가치 및 21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

- Visit Britain은 ICC여자T20 크리켓 월드컵 개최에 맞춰 인도 여행업계 관계자를 초청하여 스포츠·문화테마 지방관광 활성화를 위한 팸투어를 추진함. 6일간의 일정 중 하이라이트는 6.14일 인도 조별리그 경기 관람 및 셰익스피어 문화유산을 비롯한 지역문화, 역사관광 콘텐츠 체험임.

* 영국은 월드컵, F1영국 그랑프리, 영연방 대회, 프리미어리그 등 다양한 스포츠 이벤트가 있으며 연간 약 220만 명이 스포츠 관람 포함 여행 중. 이들의 연간 총 소비액은 약 23억 파운드 수준

** 인도는 영국 인바운드 시장에서 주요 성장시장 중 하나로 2025년 65만명 규모에서 2030년 100만 명 이상이 영국을 방문할 것 예상

○ (소비자 동향) 국내 경제와 정세 영향으로 변동하는 영국인 여행 수요. 최근 중동 정세 완화는 아시아 인바운드 시장에는 기회..

- 영국인들의 여행 관련 지출이 최근 3-5월 3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

음. 영국금융사 Barclays에 따르면 5월 여행부문 지출은 전기대비 5.8% 감소하였으며 여름 휴가를 앞두고 여전히 예약을 미루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 세부적으로 여행상품, 항공권 결제가 각각 5.3%, 12.9% 감소하며 해외여행 수요가 최근 3개월간 확실히 위축되고 있음을 확인.

- 주요원인으로 중동 지역 분쟁에 따른 불확실성 및 여행비용 상승 우려로 소비자들이 예약을 늦추고 있다고 보며, 업계는 이러한 경향이 영국 국내여행 수요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
- 한편, 영국 외무부(FCDO)가 걸프(Gulf)지역 여행경보를 완화한 이후 올해 여름 장거리 여행 반등 조짐 전망도 있음. 장거리 여행 완화는 중동지역 목적지 회복은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나 그 외 아시아 목적지 시장에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임. 주요여행사 중 하나인 Fred Olsen Travel 관계자는 실제로 '아시아 여행상품 판매율이 몇 주 만에 다시 상위 지역 3위권에 진입'했다고 언급.

* 영국 외무부(FCDO)는 6.18일 미국과 이란 간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체결 이후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오만,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해 시행하던 '필수 목적 외 여행 자제(All but essential travel)' 권고를 해제

○ (항공) British Airways, 캐나다 Porter Airlines과 코드셰어 체결, 캐나다 17개 도시 연결 등

- 영국 British Airways(BA) 회원들은 보다 편리하게 캐나다를 여행할 수 있게 된다. 런던에서 토론토, 몬트리올을 경유하여 Porter Airlines 국내선 예약을 통해 캐나다 내 17개 기타 목적지로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게 됨. 최근 글로벌 항공사들은 코드셰어 및 마일리지 연계로 항공 네트워크 경쟁력을 강화하는 추세임.

- 한편 영국 정부는 런던 히드로(Heathrow) 공항 제3활주로 건설 관련 공공협의를 착수하였다고 함. 2029년 최종 개발 승인을 목표로 2026년 9월까지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며 금번 조치로 히드로 공항이 확장될 경우 영국의 글로벌 허브공항 경쟁력 강화와 함께 국제 항공노선도 확대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

※ 동향 출처 : 현지 관광전문지(Travel weekly 등), 언론기사(the independent 등) 및 영국관광공사(Visitbritain) 공식 홈페이지 등 주요 기사 및 보도 참고